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7

지난 주말에는 이들을 연속해서 제자들의 결혼식 주례를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젊은이가 새 가정을 꾸리는 경사스런 일이기에 나는 늘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의 주례를 서줍니다. 내가 주례를 서준 커플들이 오손도손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쁩니다. 그렇지만 너무 자주 서주다 보면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 이틀 연속으로 주례를 서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결혼한 제자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학부 때부터 친하게 지내왔기도 하고 오래 전부터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에 이미 선약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토요일에 결혼하는 제자가 또 다시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해온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힘들다고 사양하는 것이 보통인데,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사양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둘이 서로 절친이어서 한 사람만 서주고 다른 사람은 서주지 않았으면 상당히 섭섭해 할 뻔한 경우였습니다.

조금 무리를 해서 두 사람 모두 주례를 서주었는데, 그렇게 해주고 나니 마음이 무척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끝낸 그들이 뜻밖으로 나를 기쁘게 해주더군요. 금요일에 결혼한 제자는 발리에서 짧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바로 뉴욕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뉴욕으로 떠나기 직전에 나에게 인사를 오겠다고 합니다. 나는 그럴 필요 없으니 나중에 시간 많을 때 찾아와도 된다고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래도 부득부득 찾아오겠다고 고집을 피우더군요. 그렇게 바쁜 중에도 굳이 인사를 차리겠다고 그를 보며 나는 무척 흐뭇했습니다.

토요일에 결혼한 제자는 솔직히 말해 학부 때 그리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나를 무척 좋아했나 봅니다. 어렵게 주례 부탁 말을 꺼내더니 승낙을 해주니까 뿔 듯이 기뻐하더군요. 그 친구는 결혼식 끝나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공항에서 내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이메일을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끝나자마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그러니 그 이메일을 열어보는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상상이 가시겠지요?

그런데 내가 주례를 서주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예의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결혼식 끝난 후 인사 한 번 오지 않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편하게 사는 세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준 사람에게는 조금 한가해진 틈을 타서 인사를 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번잡스러운 격식이라고 한다면 너무 매마른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나마 내가 잘 아는 제자의 주례를 선 경우는 그렇게 인사를 차리지 않아도 덜 섭섭합니다. 내가 경험한 사례 중에는 거의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제자라고 하면서 주례 부탁을 해서 어렵게 서줬는데도 결혼식 끝나고 인사 한 번 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례를 서주었다면 더욱 고마워하고 깍듯이 인사를 챙겨야 마땅한 일일 텐데요. 주례 부탁을 할 때의 태도와 결혼식이 끝난 후의 태도가 너무나 다른 게 눈에 뵈히 보이더군요.

사실 잘 모르는데 제자라고 찾아왔을 경우에 선뜻 주례 부탁을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 서울법대를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법대 졸업생을 사칭하고 다닌 사람의 얘기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 사람은 법대 교수에게 제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주례 부탁을 했나 봅니다. 그 교수는

의심하지 않고 주례를 서주었는데 나중에 가짜 학생이었던 것이 들통 나서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네요. 이에 충격을 받은 그 교수는 그 후론 제자들 주례 절대로 서주지 않았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나도 낮은 사람이 제자라고 하면서 주례 부탁을 할 때 상당히 주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도록 어렵게 주례를 서주기로 결심했는데 결혼식 끝나고선 고맙다는 문자 하나 보내지 않고 입을 싹 씻어버릴 때는 정말로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결혼한 두 제자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까지 하면서 나를 즐겁게 해준 것입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두 사람 모두 주례를 서주기를 정말로 잘했다는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어찌 되었든 나는 친하게 지내던 제자들이 주례 부탁을 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꺼이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내가 늘 농담처럼 말하지만 주례를 서주는 일은 교수에게 주어진 중요한 애프터서비스의 임무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애프터서비스를 요청해 오는 제자들의 부탁을 뿌리친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중요한 애프터서비스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추천서 필요할 때 서슴지 않고 써주는 일입니다.

나도 유학 떠날 때 은사님들이 흔쾌히 추천서 써주신 덕분으로 무사히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교수가 되었으니 제자들에게 그 덕을 베풀어야 할 때가 된 것이지요. 서울대학에 온 지 올해로 만 30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 한 해 평균 다섯 명에서 열 명 사이의 제자들에게 유학에 필요한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써준 추천서의 총 갯수가 2백 개 정도 되는 셈입니다. 유학이 아닌 취직을 위한 추천서도 비슷하게 많이 써줬습니다.

학생들 게시판 보면 추천서 써준 교수에게 무엇을 선물하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올리는 사람을 가끔 봅니다. 그 글을 보면서 내가 답글을 올린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쓸 거라고 혼자 생각합니다. 굳이 선물을 하지 않아도 추천서 써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추천서 써줄 때마다 선물을 챙겼다면 우리 집이 선물로 그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운 시간 써가며 자기를 위해 추천서를 써준 은사라면 유학을 가서 혹은 취직을 하고 나서 안부 정도는 전해야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카드나 연하장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메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제자들도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추천서 받을 때는 고맙다고 몇 번씩이나 절하면서 일단 떠난 후에는 함흥차사처럼 아무 기별도 없는 제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불가(佛家)에서는 지나면서 서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깊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례 서준 은사, 그리고 추천서 써준 은사라면 자기와 얼마나 깊은 인연을 맺은 사람입니까? 이런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지 인사를 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 내내 그 깊은 인연을 유지해 나가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차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주례를 서준 제자와 추천서를 써준 제자들에게 일생 동안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례를 서주거나 추천서를 써줄 때는 그런 마음으로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스스로 박차는 결과를 빚는 것이지요. 그 멘토링 서비스는 무료이면서 품질도 매우 좋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충고를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

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고 그것을 계기로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회생활을 해보면 절감하게 되겠지만 그런 인연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좋은 인연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례를 서준 은사와 추천서를 써준 은사에게 인사를 제대로 차리지 않는 사람은 바보 중에서도 상 바보입니다. 일생 동안 자신의 삶에서 귀중한 자산이 될 좋은 인연을 맺을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린 셈이니까요.

여러분이 인사를 차려야 하는데 제대로 차리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몰라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는 누가 “이런 것이 예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학교에서도 별로 가르치지 않고 부모들도 별로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갖춘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리라고 짐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격이 워낙 수줍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인사를 하러 간다는 것이 공연히 쑥스러운 나머지 그냥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동안 관찰해본 바로는 그 정도로 수줍은 성격의 소유자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낙 게으른 성격이라 예의 차리는 일조차 귀찮아서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 예의 차려서 밥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귀찮음을 무릅쓰고 굳이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랬든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노력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노력은 정말로 값진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인연이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타산적인 이유에서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인연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위에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살피주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서 큰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도 않는데도 소중한 인연이 호박처럼 굴러들어올 리 없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